

목포 옥암택지 대학부지 용도변경 시급

목포시 10년 홍보 불구 입지희망 없어 '빈땅' 방치 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목포시 옥암지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대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암택지 핵심에 위치한 대학부지는 총 면적 19만6793㎡(5만9530평)로 현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연 녹지'에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를 적용받고, 층수도 10층으로 제한돼 있다. 목포시는 지난 10년동안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나 학생수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으로 입지 희망대학이 없어 그동안 빈 땅으로 방치돼 왔다. 이에 시는 원활한 부지매각을 위해 현행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기존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풀고, 용도를 '대학시설'에서 '대학 및 의료·연구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건폐율 50%와 용적률 400%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의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인근 골드 클래스·한라비발디 등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하지만 시는 대학 및 의료·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상가·모텔·유흥업소 등은 절대 입주할 수 없게 되고, 제한 층수도 10층에서 8층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서남권을 거점으로 하는 교

육 및 의료·연구 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관련 인프라와 고급 인력들이 대거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4월 보건복지부 주관의 '응급의료 닥터 헬기사업'에 전남도가 선정돼 대학부지 내에 서남권 도서지방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헬리 패드'가 설치 운영 중인 가운데, 올 상반기중 5개 권역별로 1개소씩 '중증 외상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부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 각급 유관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의과대학 유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본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가 국내외 'MICE'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한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포상 관광 (incentives)·컨벤션 (convention)·전시(exhibition)의 4개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용어다. 목포시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국내 여행업체 대표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일본인 관광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에는 대만 라이온스클럽 40명이 1박2일 일정으로 목포를 탐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MICE'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17~19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2 한국 철도학회 학술 심포지엄'을 유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000여명의 철도학회 회원이 목포 국제컨벤션센터



“이게 바로 자연산 돌미역”
역에 비해 향이 강하다.

완도군 고급면 청학동 주민들이 8월 바닷가에서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고 있다. 자연산 돌미역은 단맛이 강하고 담백하며, 일반 양식미역에 비해 향이 강하다. <완도군 제공>

목포시 'MICE' 관광객 유치 시동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교과부 우수 교육지원청에 무안교육지원청 선정

목포시가 국내외 'MICE'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한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포상 관광 (incentives)·컨벤션 (convention)·전시(exhibition)의 4개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용어다. 목포시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국내 여행업체 대표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일본인 관광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에는 대만 라이온스클럽 40명이 1박2일 일정으로 목포를 탐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MICE'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17~19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2 한국 철도학회 학술 심포지엄'을 유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1000여명의 철도학회 회원이 목포 국제컨벤션센터

등에 머물며 목포의 음식을 맛보고 쇼핑을 하면서 다양한 관광을 하게 된다. 또 '목포 공생원' 설립자 윤화자 이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계 고아의 날' 제정과 한·일 친선교류 행사가 열리는 10월 29일부터 사흘간 일본인 관광객 3000여 명을 포함해 3만5000여 명이 목포를 찾을 예정이다. 8월 8일부터 사흘간 15개국 300명이 참가하는 '2012 국제 스포츠과학 학술대회'가 열린다. 주동식 목포 부시장은 "서울 등지에서 열리는 관광설명회 등 발로 뛰는 홍보 마케팅과 지속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MICE 관광을 선점하고, 1000만 목포 관광사대를 열어가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무안교육지원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2012년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개선 관련 공모사업에서 선도적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8000여만 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한편 충북대 한국지방교육 연구소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178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을 선정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심의결과 전국에서 10개 교육지원청이 최종 선정됐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유일하게 무안 교육지원청이 선정됐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남 '망끝 매화축제' 24~25일 산이 매실농원



'제3회 망끝 매화축제'가 오는 24~25일 이틀간 해남군 산이매실농원에서 열린다. '올 봄은 망끝 매화밭에서 가족과 함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록 페스티벌, 색소폰 동호회 연주, 다문화여성 난타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가족 2~3대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가족노래자랑과 가족·연인·친지와 함께 매화꽃을 배경으로 하는 매화사진 콘테스트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화 장신구 만들기와 봄나물 채기 체험 등 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마당도 마련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정 120여명도 축제장으로 초청해 '하늘다래 예술단'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매화터널을 이루는 아름다운 꽃밭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체험거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해 매실농원은 단일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50ha에 달한다. 흥매, 청매, 백매 등 다양한 매화나무 1만5000여 그루가 축제 때 일제히 은은한 매화향을 뿜어내며 분위기를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군산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가시화

군산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가시화된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보상계획이 공고돼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4월중에 감정평가를 거쳐 5월부터 보상협약이 본격화된다. 보상대상은 인입철도 지역에는 1811필지(189만㎡), 복선전철 지역

에는 801필지(59만5000㎡)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군산 대야역~군산2국가산업단지(29.9km)에 이르는 인입철도와 동이산역~대야역(14.3km) 구간에 철로를 개설하는 공사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오는 4~5월경 1조573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18년까지다. /전북취재본부=박규석기자 nogusu@

원광대 내년 11개학과 폐지

작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경쟁력 강화 자구노력 지속

작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어려움을 겪은 원광대가 내년 11개학과를 폐지한다. 원광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위 15%에 포함된 한국문화학과와 독일문화, 한국학 등 11개 학과와 폐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원광대는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직후부터 수개월간 교과부와 경영자문을 받았고 최근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경영 컨설팅 평가대상 학과 77개 중 11개 학과의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앞서 단행한 입학정원 감축(429명)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13학년도부터는 이들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원광대는 11개 학과 폐지 이후에도 학과(과)와 전공 통합할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해 매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과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1학년을 포함한 재학생은 졸업때까지 현행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지대상 학과의 교원은 신설할 교양학부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광대는 강의개발 연구년제와 교재개발 연구비지원, 박사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원광대는 이번 컨설팅 결과의 이행을 위해 '경영컨설팅 이행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부안 바다에 우량 수산종묘 방류

수산기술원, 전북·감성돔·해삼 2400만마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소장 김연수)는 올해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연안해역 특성에 맞춰 전북과 감성돔·해삼 등 우량 수산종묘 2400만마리를 방류한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어린 감성돔과 대하, 꽃게, 주꾸미, 해삼을 이달부터 10월까지 연안해역에 방류하고, 전북 20만 마리를 4월 개 군산시와 부안군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해

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을 생산·방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0~2011년 3억1164만7000마리의 어린 고기를 도내 연안해역에 방류했다. 지난해의 경우 감성돔·넙치·대하·꽃게·전복·주꾸미·해삼 등을 ▲군산 858만마리 ▲고창 854만마리 ▲부안 847만마리를 방류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보건소 집단 급식소 위생지도·점검

남원시 보건소는 오는 16일까지 관내 사회복식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위생지도·점검은 봄을 맞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집단급식소의 환경상태

와 식품원료 보관상태, 식품 위생적 취급상태 등 운영 제반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현장 확인한다. 또 올해는 '전북 방문의 해'인 만큼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한국C&T 순창방적공장 국악공연
난해 순창 풍산 농공단지에서 동지를 틀었다.

한국C&T 순창방적공장은 최근 군민향토회관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공연을 가졌다. 한국C&T는 지난해 순창 풍산 농공단지에서 동지를 틀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김제시 체납지방세 25% 대폭 감소

김제시의 체납지방세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입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0년도와 비교해 결산기준 체납액이 25% 감소했다. 시는 지난 1년동안 여의의 체납자에 대해 납세담보를 저당권 설정 등 고도

의 징수기법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 3명에게서 체납액 9억14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장기·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구금지, 명단공개, 공매제도를 적극 실시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단 신

가족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25~35% 지원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재해보험료의 농가부담금 중 25~35%를 지원한다. 가족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질병·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들의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보

험제도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축산농가에는 25%를, 소 30마리 이하나 돼지 500마리 이하인 영세농가에는 35%를 지원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의 80~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추진

정읍시는 숲가꾸기 사업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부산물을 수집해 에너지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3억9000만원을 들여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에는 1일 53명씩 연 인원 5300여명이 투입된다. 한편 매년 정읍지역에서는 250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이용가능한 많은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량의 10%만 활용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사회복지관 노인 우울증·자살 예방 상담

남원사회복지관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부터 '행복타임 파워업!'을 주제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환혼 우울 및 노인자살예방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프로그램은 심리·정서적 치료 등을 통해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과 집단 미술치료도 병행한다.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풍물·장구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이상주 김제경찰서장 학교폭력 예방 특강

김제경찰서 이상주 서장은 최근 김제고등학교를 찾아 전교생 4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김제경찰은 신학기 초 들뜬 분위기 속에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발생이 우려돼 개학과 동시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장은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